



부활절 특집(설교 5편)

부활의 소망(고전 15:12~19)

오 병 세

- 고신대학신학대학원 교수
- 개혁주의 신행협회 이사장 / 본지 발행인

고린도전서 15장은 위대한 바울 사도의 부활에 대한 논증입니다. 그는 이 부활장에서 성경을 따라 사실을 밝히고, 그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 만일 부활이 없다면

바울 사도는 본문 12~19절 여덟 절 중에서 ‘만일’이라는 말을 6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의하면 15절과 18절 두 절에는 ‘만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영문 번역에도 대부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일’이라는 말은 보통, 사실과는 다른 사건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해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인 이야기이지만 토론을 위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6 회나 쓰인 ‘만일’이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하여 토론을 위해 사용한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19절)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종보다 더 불쌍할까요? 흉악한 사형수보다 더 불쌍할까요? 또 구걸하고 빌어먹는 자보다 더 불쌍할까요? 평생 고통을 당하고 행동의 자유가 없는 자보다 더 불쌍할까요? 이 모든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열거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만 어려움을 당하고 말 것이나,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상에서만 고생하며 가련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고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믿으며 속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불쌍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헛된 소망을 참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오순절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성경도 있을 수 없고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성부의 모든 약속도 다 헛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치워버려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나 장래의 소망도 다 아랑곳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기독교 교리의 토대이며 기둥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흔들리며, 우리에게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뻔하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를 위시하여 모든 설교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과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2. 가장 축복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전체 신약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4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유대와 갈릴리에서 활약하신 일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소유한 자로, 그의 부활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히 13:20)이라고 하였으며, 베드로도 “그 많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벧전 1:3)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사도들의 증거는 주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였고, 베드로와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사도를 세운 이유는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행 1:22, 고전 9:1).

미국의 한 언론인은 전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사실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부활의 사실”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둡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두움이 물러가 밝은 세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비참 뒤에 부활이라는 소망과 능력이 있기에 기독교의 복음은 소망의 복음이며, 기쁨의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소망이란 죽음 이쪽에서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 신자는 “소망이 있는 동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요, 방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또 부활 없는 십자가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흥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켰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9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바로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소유한 자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독지가를 찾습니다 !!

본 협회는 33년 전(1957년)에 고 박윤선 목사를 중심으로 한, 5명의 창립 멤버들에 의해 창설되어 그동안 개혁주의 - 칼빈주의 신앙(신학)에 입각한 도서 출판, 학술 세미나,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신학교 등의 도서관 설립·확장에 기여, 개혁주의 신학의 국제적 교류 증진(국제 회의 참석, 출판비 보조) 등의 사업을 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개혁주의 사상과 경험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려는 본 협회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본 협회는 어느 개인의 영리를 배제한, 위와 같은 공익 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독교 단체로서, 그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헌신적으로 봉사한 여러 회원들의 노고로 작은 걸음이나마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셋방살이의 신세를 벗어나 더욱 본격적인 궤도에서 발전의 가속화를 도모하고자 본 협회 이사회('90. 4. 23)에서는 중대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곧 자체 회관 건립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선한 일을 시작케 하신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또한 협회 자체에서 자금 비축에 최선을 다하면서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협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키 어려워 이 귀중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업에 기꺼이 동참해 주실 독지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뜻이 계신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해 주시면 쌍수로 환영하옵고, 이 사업으로 인한 주 안에서 큰 보람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주의신행협회

120-01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47

☎ 312-6758 · 392-4716